



Golden Child, 2018. Bronze. 125 x 132 x 95 cm | 49 3/16 x 51 15/16 x 37 3/8 in. © 2018 Otani Workshop/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OTANI WORKSHOP CHILDREN OF

Opening Thursday August 23, 5 - 7pm
August 23 - September 22, 2018

오프닝 목요일 8월 23일, 5 - 7pm
8월 23일 - 9월 22일, 2018

Perrotin Seoul is pleased to present Otani Workshop's first solo exhibition in South Korea. The occasion also marks the artist's first solo show with the gallery.

Established in 2005, Otani Workshop is representative of an exciting new wave of ceramic artists from Japan, blending time-honored Japanese artistic techniques with contemporary aesthetics. While it is true that the word workshop invites an assumption that it is a collective of artists, a factory or even an amateur experiment, Otani Workshop is in fact the name of a single artist: Shigeru Otani.

While a student at Okinawa Prefectural University of Arts, Otani became frustrated by the prospect of indigence as an artist. This led the artist to take a sabbatical from school and embark on a year-long personal expedition, exploring Japan while sleeping in the bed of a pickup truck. What began as a tour of various museums, temples and shrines of his home country, soon became an introspective journey, questioning his identity as an artist. This experience led to the epiphany that he was, after all, on the right path toward a predestined career as a sculptor.

After returning to school and completing his studies, Otani Workshop's first solo show was held only four years later (Otani Workshop

페로탕 서울은 한국에서 열리는 오타니 워크숍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개인전은 오타니 워크숍이 페로탕 갤러리와 함께 진행하는 첫 번째 전시이다.

2005년 설립된 오타니 워크숍은 일본의 새로운 도자 예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이어진 도예 기법과 동시대적 미학을 하나로 묶어 선보인다. '워크숍'이라는 단어 탓에 여러 예술가가 모인 단체이거나 작가들이 함께 쓰는 공방, 심지어는 아마추어들의 실험적 활동이 아닐까 짐작할 수도 있지만, 오타니 워크숍은 오로지 한 명으로 이뤄졌다. 바로 작가 오타니 시게루다.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에 재학 중이던 오타니 시게루는 작가로 처하게 될 곤궁함에 낙담했고, 이후 일 년간 화물트럭에서 잠을 청하며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는 자체적 안식년을 취했다. 미술관과 박물관, 사원, 신사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주어진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는 내면의 여정으로 바뀌었다. 이 경험은 작가 자신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조각가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오타니 워크숍의 첫 개인전은 작가가 예술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치고 불과 사 년 뒤에 이뤄졌다. (<오타니 공작실 전시회전>, 갤러리카라하시, 시가) 오타니 워크숍은 곧 무라카미 타카시의 이목을 끌었고, 타카시는 현재 오타니 워크숍의 멘토이자 큐레이터로 도움을 주고 있다.

오타니 워크숍은 2017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여 년에 걸쳐 시라가키에서



Boy, 2018. Ceramic. 47.5 × 57.5 × 18.5 cm | 18 11/16 × 22 5/8 × 7 5/16 in
© 2018 Otani Workshop/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Sleeping Girl, 2018. Ceramic. 28 × 28 × 69 cm | 11 1/16 × 11 1/16 × 27 3/16 in
© 2018 Otani Workshop/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Tenjikaiten, Gallery KARAHASHI, Shiga, Japan, 2008). He soon attracted the attention of Takashi Murakami, who currently acts as both a mentor and curator for the artist.

Until 2017, for nearly a decade Otani worked out of Shigaraki, Japan – the ancient capital of Japanese pottery famous for locally mined clay – inside The Shigaraki Ceramic Cultural Park, a public facility which allowed the artist access to a shared kiln. Wanting to devote more independent study and time to the development of large-scale works in his own space, the artist first searched the area for a private studio but ultimately ended up purchasing an former ceramic roof tile factory on Awaji Island. Located approximately two hours outside Kobe, Japan, the factory was deserted due to devastation caused from repeated earthquakes, beginning with 1995's Great Hanshin disaster. As sales of the traditional roof tiles further declined, many of the island's factories became deserted.

Captivated by the historical ties of the island to ceramics, in this new space Otani began to create a wide range of objects from small clay figures to contorted humanlike ceramic sculptures, often mixing wood, iron, and other materials from Awaji Island into the final piece. The building also came equipped with a large working kiln, allowing Otani Workshop to test the limits of his imagination through sculpture. Full of personality, many of his works maintain the rough texture of the clay – still sourced from Shigaraki - throughout the asymmetrical figures which is indicative of the paradigm shift in Japanese ceramics.

Of note is Otani Workshop's installation style, which, as a pillar of his practice, elevates the idea of craft to fine art. The artist's most recent solo exhibition, *When I Was Seventeen, I Learned About Giacometti From My Art Teacher and Became Drawn to Sculpture—and So I Make Sculptures Now.* (Kaikai Kiki Gallery, Tokyo, 2016), for instance, explored the fluid relationship between ceramics and sculptures with equal parts humor and brutal honesty, inviting the viewer to feel as though they have stepped directly into the physical manifestation of Otani Workshop's fantasy. Be it a pitcher or a bowl resting in a custom-made cupboard, or a large, fantastical ceramic head seeming growing from a mound of grass, the works are displayed in a way as to question the practicality or decorativeness of each piece. Owing to a profound presence as works of fine art, they showcase the strange

작업을 진행했다. 시라가키는 예로부터 지역에서 나는 점토로 유명하며, '시가현립 도예의 숲(滋賀県立陶芸の森)'이 있어 예술가들이 가마를 사용할 수 있다. 오타니 워크숍 역시 이곳의 가마를 사용했다. 오타니 워크숍은 작업에 관해 더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대형 작업을 전개하고자 시라가키에서 작업실을 수배했고, 결과적으로는 아와지 섬에서 지붕용 도자기 타일 공장으로 쓰이던 공간을 구매하게 되었다. 고베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이 공장은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반복된 크고 작은 지진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지붕 타일의 인기가 줄어들면서 아와지 섬에 있는 다른 공장들도 문을 닫고 버려졌다.

작가는 아와지 섬에 남겨진 역사적인 타일과 도자기에 매혹되었고, 새로운 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점토를 활용한 작은 형상에서부터 비틀어진 모양의 인간처럼 보이는 도자 조각에 이르는 다양한 오브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은 나무와 쇠를 비롯해 아와지 섬에서 발견한 여러 재료를 섞어 완성된다. 새 작업 공간은 대형 가마를 갖추고 있어 조각을 통한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타니 워크숍의 작업 중 상당수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데, 비대칭적 형상을 취하는 동시에 거친 점토의 질감을 유지한다. 이것은 일본 도예의 전형적인 인식이 새롭게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오타니 워크숍 작업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작업 설치 방식은 공예의 개념을 미술에 이르도록 끌어올린다. 예를 들어 작가가 가장 최근에 진행한 개인전 <내가 17세 때 자코메티의 이야기를 미술 선생님에게 들은 뒤로 조각을 동경하게 됐고, 나는 지금 조각을 만들고있습니다>(카이카이키키갤러리, 도쿄, 2016)에서 작가는 도예와 조각이 맺고 있는 유동적 관계를 탐구했고, 유머와 동시에 가차없는 솔직함을 보였다. 관객은 마치 오타니 워크숍이 꿈꾸는 공상 속에 직접 걸어 들어간 것처럼 느꼈다. 크기를 맞춘 선반 위에 물병이나 창자가 놓여 있고, 도자기로 만들어진 거대하고 허황된 두상이 잔디로 이뤄진 둔덕에서 자라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했는데, 각각의 작업은 그것이 지닌 실용성 혹은 장식성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보여졌다. 이 작업들은 미술 작품으로써 심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전통 문화와 동시대 문화의 기이한 상호 관계를 드러내 보였다.

오타니 워크숍의 작업은 도예와 조각, 공예로 점철된 다양한 이야기를 관객에게 제시한다. 이러한 서사적 요소들은 궁극적으로 미술을 새롭게 정의내리도록 하며, 이것은 우리 자신을 또한 새롭게 정의하게 이끈다.

오타니 워크숍

오타니 시게루는 1980년 생으로, 2004년에 오키나와현립예술대학을



F-girl, 2018. Ceramic. 24.6 × 28 × 24 cm | 9 11/16 × 11 1/16 × 9 7/16 in
© 2018 Otani Workshop/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Old Man, 2018. Ceramic. 7.5 × 7.2 × 7.1 cm | 2 15/16 × 2 13/16 × 2 13/16 in
© 2018 Otani Workshop/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Courtesy Perrotin

reciprocity between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culture.

Through Otani's practice, the viewer is presented with narratives vested in the combination of ceramics, sculpture and craft – narratives that, ultimately, lead to new definitions of fine art and, crucially, of ourselves.

ABOUT THE ARTIST

A graduate of Okinawa Prefectural University of Arts (2004), Otani was born in Shiga Prefecture in 1980. Otani Workshop has exhibited extensively in Japan, including: *An Occasion for Contemplating Ceramics and Sculpture: Seeds Sown in Shigaraki*, 2017, Kaikai Kiki Gallery, Tokyo, Japan; *When I Was Seventeen, I Learned About Giacometti From My Art Teacher and Became Drawn to Sculpture - and So I Make Sculptures Now.*, 2016, Kaikai Kiki Gallery, Tokyo, Japan; *Otani Workshop*, 2015, gallery uchiumi, Tokyo, Japan; *Otani Workshop*, 2013, Tri Gallery, Tokyo, Japan; *Otani Workshop*, 2011, Nichi-nichi, Tokyo, Japan; *Otani Workshop*, 2008, Ginza AKANE art gallery, Tokyo, Japan.

[More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

졸업했다. 오타니 워크숍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다음과 같은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도예와 조각을 숙고하기 위한 행사: 시가라키에 뿌려진 씨앗들> (카이카이 갤러리, 도쿄, 2017), <내가 17세 때 자코메티의 이야기를 미술 선생님에게 들은 뒤로 조각을 동경하게 됐고, 나는 지금 조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이카이이키키갤러리, 도쿄, 2016), <오타니 워크숍> (갤러리 우치우미, 도쿄, 2015), <오타니 워크숍> (트라이 갤러리, 도쿄, 2013), <오타니 워크숍> (니치-니치, 도쿄, 2011), <오타니 워크숍> (긴자 아카네 아트 갤러리, 도쿄, 2008).

[작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